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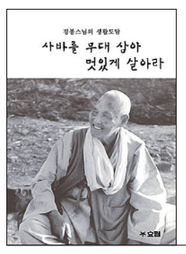
7/3~7/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원빈스님의금강경에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4	석가와 예수는 백인인가?: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감성의 종교 철학에세이	이원익	운주사	9	아비담마 길라잡이(1)*전정판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
5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개정판)	월폴라라훌라/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 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선지식이 전하는 이야기 생활법문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원광 경봉 대선사 지음
김현준 엮음
효림출판사/8000원



경봉 선사는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통도사 성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세에 해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전국 유명 선원에서 수행하다가, 1927년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활연히 대오하였다. 이후 통도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1953년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조실로 추대된 이후 열반의 그날까지 30년을 극락암에 주석하시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82년에 원적했다.

경봉 선사 법문, 유발상좌가 엮어
"사바세계 문제는 결국 三毒 때문"
67가지 이야기 속에 깨달음 담겨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원광 경봉 선사(1892~1982)는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중 한 명이다. 경봉 스님은 최고의 도인(道人)으로 추앙받았지만, 스님의 법문은 고담준론이 아니었다. 늘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편안한 언어로 쉽게 법문을 해줬다고 한다.

경봉 스님의 유발상좌로, 평생을 불교 수행과 포교와 연구에 몰두한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스님의 법문을 엮은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를 펴냈다.

김현준 원장은 경봉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법문들을 최대한 모아 책으로 엮어 내겠다는 원을 세웠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다. 이를 위해 김현준 원장은 지난해부터 월간 〈법공양〉에 연재를 진행했고, 미연재분 20개 이야기 더해 책을 출간했다.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에 담긴 이야기 법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얼굴이 평온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나는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등을 탁 치면서 꾸짖는다.

"무엇 때문에 수심·근심 보따리를 가슴에 잔뜩 안고 다니느냐! 그 근심 걱정 보따리가 다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신경질이 많은 데서 생긴 것이다. 고쳐라! 고무줄이나 용수철은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오므라든다. 이것처럼 사람도 신축성이 있어야 세상을 살면서 상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버스에 쿠션이 없으면 엉덩이가 어찌 안 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예'하면서 반성을 한다.

– '급한 성질과 고집과 신경질' 59쪽

총 7장에 67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회하고 환생한 유명인의 윤회 사례와, 원을 깊이 있게 세우면 몸을 바꾸어서라도 성취하게 됨을 알 수 있게 하는 8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제2장 '사바의 문제는 삼독(三毒)'에서는 급한 성질과 고집과 신경질을 다스리면 능히 삼독을 다스릴 수 있다는 법문과 함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실체와 과보에 대한 11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3장 '사바의 꿈에서 깨어나라'에서는 사바세계의 실체를 일러주는 이야기와 사바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12가지 이야기가 실렸다.

제4장 '정성과 원성취'에서는 정성만 들이면 최상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과,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8가지 이야기로 깨우쳐 주고 있다.

제5장 '인욕과 정진과 성공'에서는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내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과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문득 힘이 생기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7가지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제6장 '복 지어야 복 받는다'에서는 복을 담는 1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제7장 '지혜롭게 살아가라'에서는 지혜로써 업을 녹이고 교화한 불교이야기 7가지를 담았다.

경봉 스님은 우리에게 "'참을 인(忍)' 세 개를 가슴에 품으라" 설한다. '인욕하라'는 당부지만, 이는 남에게 당하는 것을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나쁜 버릇, 급한 성질이나 고집·신경질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푹 빠지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참을 인자 세 개를 가슴에 품어라' 55쪽

설한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에는 살다 보면 부딪히는 각종 문제와 좌절, 극복과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 스님의 법문을 함께 싣고 있다. 사바세계의 실체를 비롯해 윤회·원력·지혜로운 삶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또한 영조대왕, 당태종, 한신, 암행어사 박문수, 영의정 정원용, 육조 대사, 자장 율사, 서산 대사 등 위인의 감명 깊은 이야기들은 마치 구수한 옛날이야기 한자락을 듣는 듯하다.

제1장 '윤회부터 믿어라'에서는 윤

운수납자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다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지음
불교신문사
1만8000원

'산과 강처럼 살고 싶었다'는 산강(山江) 대혜(大惠)스님이 2019년 원적에 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보낸 이야기를 엮은 〈봉암사 동안거 일기〉를 출간했다.

대혜 스님은 청소년 때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고, 이는 출가로 이어지는 길이 됐다. 1978년 직지사에서 영허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불국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사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원에서 불교를 배우며 '부처님의 머슴이 되어야겠다'고 발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런 스님에게 뜻하지 않게 봉암사 선원에 갈 기회가 생겼다.

포교 일선에 있었던 대혜 스님은 선원이 낯설었다. 그래도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한번은 경험하고 싶었던 게 선원에 방부를 들여 수행하는 동안거였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당대의 선지식으로 알려진 봉암사 주좌인 적명스님을 모시고 동안거를 보낸 것은 큰 행운이기도 했다.

2014년 겨울 봉암사에 동안거에 들어간 대혜 스님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됐다. 틈틈이 시간을 내 매일 저녁에 일기를 썼던 것도 값진 일이었다.

봉암사에서 100일간의 동안거에 들어 정진하면서 대혜 스님은 많은 수행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길 없는 길'이라도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앉은 곳은 허공이다. 선방에 온 지도 보름이 지났다. 공부에 진전이 없다. 14시간씩 정진하는 방사도 있다. 해제 일주일 전부터 철야정진하는 선원도 있다. 참 대단하다. 밑도 끝도 없는 정진이다. 그저 앉아서 화두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때로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란 말인가! 한심하단 생각도 든다. 정진하는 분위기는 좋다. 무엇이 보이는지. 닭이 알을 품는 것은 부화라고 해서 새끼를 품겠지만 좌선은 뭔가?

– 그 자리(2014년 12월 23일 일기에서)

하지만 정진을 거듭할수록 수행의 오묘한 맛을 느끼기도 했고, 나름대로 느낀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자문자답의 선문답도 해 본다. 이 과정들이 모두 스님의 일기에 담겼다. 동안거 해제를 하면서 대혜스 님은 화두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기도 했다지만 자신이 경험한 선수행의 체험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다. 스님의 뇌리에는 번뇌망상을 오롯이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견성처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한다.

"밝은 달 만큼 내 마음도 밝으면 좋으련만 / 잡념만이 가득하니 비워도 비워도 / 끝이 없구나. /회양산 애기암봉, 장성봉, 구왕동, 관음봉 / 오를 때 다 버린 줄 알았더니 / 착각이었구나./ 큰방에 몸뚱이만 앉았으니 / 견성처(見性處)는 어디인고?"

–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2015년 3월 5일 일기에서)

한편, 대혜 스님은 2017년 구미 금오산 정상에 위치한 약사암 주지로 부임해 등산객들에게 산중포교와 SNS를 통한 전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